

신입간호사 적응 돕는 소통 전략

롤모델 있을 때 신입간호사들 적응 잘해

일에 확신을 갖고 몰입하는 선배가 돼라

소통의 기술 배우기에 앞서 '소통하고 싶은 사람' 돼야

"신입간호사들이 잘 적응하는 조직에는 롤모델이 되는 선배가 있다."

"소통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임간호사가 신입간호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소통과 공감 전략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병원간호사회는 주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신입간호사 간호실무 적응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소통의 창 만들기' 주제로 강연한 정도성 매화결의컨텐츠연구소장은 신입간호사들과 소통할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정도성 소장은 "신입간호사가 간호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은 주임간호사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몰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조직에서든지 새로운 환경에서 방향성을 잃을 때는 롤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이 말하는 패턴과 행동을 배우려고 한다"면서 "롤모델이 많을수록 갈등상황과 고민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수긍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통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일에 의미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책 읽고 생각쓰기'를 추천했다. 하루에 3번 15분씩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글

로 정리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에 담긴 가치와 내가 현실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맞아 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도성 소장은 "소통의 기술을 배우 단기간에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신입간호사들의 롤모델이 돼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이를 간호현장에서 품소 실천해 신입간호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소통 디자인" 주제로 강연한 이현영 비엔에듀컨설팅 대표는 "소통의 전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간호사의 공감 능력 향상" 주제로 강연한 부은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부장은 다양한 연구논문을 근거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본간호학회 총회 ... 교수 임상연수 실시키로

한국기본간호학회(회장 정승교)는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12월 1일 열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학회는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수 임상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기본간호학 교과서 표준화 연구에 주력키로 했으며, 5개 기본간호학 교과서를 선정해 분석할 계획이다.

국내외 학술 및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고, 연구능력 강화에 매진키로 했다. 정책연구 및 연구비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연구비 지원금액을 인상키로 했다. 임상간호실무사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연구모임 지



원에 힘을 예정이다.

기본간호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질 제고와 SCOPUS 등재를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회원 확보 활동을 펼치고,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운영키로 했다.

한편 학술대회는 '근거기반 기본간호실무' 주제로 열렸다. 우수포스터 발표상 시상식과 학술지원수혜자 연구비 수여증 전달식이 진행됐다.

주혜진 기자 hjoo@

성인간호학회 총회 ... 학회지 질 향상 주력

한국성인간호학회(회장 김희경)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12월 7일 열고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학회는 성인간호학회지(KJAN) 질 향상에 주력키로 했다. 회원 논문투고를 격려하고, 학회지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연구출판윤리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

학회지의 피인용지수(IF) 높이기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학술지 데이터베이스(SCI 및 SSCI) 등재 준비에 힘쓰기로 했다.

회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우수연구지원사업을 계속키로 했다.

지회별로 워크숍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회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수연구지원자로 선정된 이경화(연세대 박사과정생), 김수진(고려대 석사과정생) 회원에게 연구비를 수여했다. 우수포스터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간호연구 혁신 전략 : 오늘의 이슈와 미래의 도전' 주제로 열렸다. '젠더 관점을 도입한 연구 방향' '연구 성과의 질 향상' 'Real World Data를 활용한 임상연구 접근' 등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기초간호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한국기초간호학회(회장 정재심)는 창립 20주년 기념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12월 1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치매행동 및 정신증상의 병태생리학적 접근' 주제로 열렸다. 특강을 통해 최근 새롭게 알려진 치매의 병태생리학적 기전과 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최신 치료방법과 간호학적 접근 및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명애 초대회장, 이경숙 전임회장, 김주현 전임회장이 좌장을 맡아 더욱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회원들의 연구논문 10편이 포스터로 발표됐다. 한국우수논문상 수여, 우수연구과제 선정자 발표, 우수포스터상 시상 등이 진행됐



다.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한국기초간호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행사가 함께 열렸다. 학회 2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연혁이 보고됐으며, 영상물이 상영됐다.

정재심 한국기초간호학회장이 환영사, 김희승 한국간호과학회장이 축사, 최명애 한국기초간호학회 초대회장이 회고사를 했다. 회원들은 학회가 앞으로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보건간호학회 총회 ... 새 회장 권명순 교수

한국보건간호학회는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12월 7일 열고 새 회장으로 권명순 한림대 간호학부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학회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정착에 매진키로 했다.

보건간호학회지의 SCOPUS 등재를 위한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학회지를 연 3회 발간하고, 질적 수준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연구윤리 사례를 공유키로 했다.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고, 회원 전체 대상 이메일 공지 및 사업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간호학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활발히 교류할 계획이



다. 홈페이지 관리와 대학원생 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추계학술대회는 '지역사회 기반 감염병 예방 및 보건간호 전략' 주제로 개최됐다.

'국가 감염병 예방 정책 및 현황' '감염병 재난관리를 위한 보건간호사의 역할'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주혜진 기자 hjoo@

노인간호학회 총회 ... 새 회장 김혜령 교수

노인간호학회는 정기총회 및 2018년 치매실무종사자를 위한 치매교육을 12월 7일 열고 새 회장으로 김혜령 인제대 간호학과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부회장(차기 회장)에는 송준아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가 뽑혔다.

학회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학부 노인간호학 교육과정 표준화 작업에 주력키로 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학습목표에 기반한 학부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치매실무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노인간호학회지를 연 3회 발간하고, 질 제고에 매진키로 했다. 학회지의 SCOPUS 등재를 위한



준비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원 확보를 위해 가입을 독려하고, 우수논문상 시상을 계속키로 했다.

한편 치매실무종사자를 위한 치매교육에서는 '치매환자의 포괄적 평가 및 중재'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 평가 및 간호중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주혜진 기자 hjoo@

마산대, 간호대학생 위한 교양음악회

마산대 간호학과(학부장 김은자)는 '대학생을 위한 교양음악회'를 11월 8일과 21일 두 차례 개최했다.

교양음악회는 학업에 지친 간호대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양과 정서를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음악회는 간호학과 건물 1층 로비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오픈 형식으로 열렸다. 김지숙(소프라노), 주선민(소프라노), 이해성(테너), 주상민(베이스) 등의 성악가가 출연해 향수, 오솔레미오 등 주목같은 곡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음악을 즐



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색다른 즐거웠다"면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풍성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은자 학부장은 "앞으로도 간호학과 학생들의 순수함과 예술적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공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화상사고 분석결과 발표 ... 일상생활 중 열탕화상 가장 많아

화상환자 10명 중 7명은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 수증기 등에 의한 열탕화상이며, 특히 영유아가 많이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손상 발생 및 원인을 조사하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의 최근 6년간 화상사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6년간 참여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화상환자는 3만 7106명이었으며, 이 중 2.8%가 입원하고 0.2%가 사망했다.

연령별 화상환자 분포를 보면 0~4세 영유아가 29.3%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 입원율은 65세 이상이 15.2%로 가장 높았다.

화상환자의 월별 분포는 매월 7.2~9.8%로 큰 차이가 없었다. 화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66.5%)이었으며, 일상생활 중(61.7%)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사고의 원인은 뜨거운 물과 같은 뜨거운 물체 및 음식이 69.5%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주전자 및 오븐 등 상시 이용물품이 11.7%로 그 뒤를 이었다.

주혜진 기자 hjoo@

Table with columns for '간호사신문' (Nurse News) and '간호학 전문' (Nursing Specialist).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nd various nursing education centers across different provinces.

Large advertisement for '간호학 전문' (Nursing Specialist) education. It features the NAVER logo, a search bar, and the slogan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From the start to passing, 'Nursing Education Center' is different). The ad lists benefits like flexible learning systems, BMW car-sharing programs, and 1:1 management service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logos of various accreditation bodies.